

MAS에 의한 대학생의 금전에 대한 태도와 외식 행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ttitude toward Money by MAS(Money Attitude Scale)  
and the Dining-out Behavior of Undergraduates\*

경희대학교 조리과학과  
연구박사 정효선  
교수 윤혜현

Department of Culinary Science and Arts, KyungHee University  
Post Doctoral Researcher : Hye Sun Jung  
Professor : Hye Hyun Yoo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요약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attitude of undergraduates toward money and the differences in dining-out behavior among three groups of subjects divided by attitude toward money.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by 387 undergraduates and data were analysed by frequency analysis, chi-square, t-test, one-way ANOVA,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luster analysis and discriminant analysis.

Results of study were as follows. There appeared six different attitudes of money among the undergraduates investigated : money as a means of seizing power, money as a life pursuit, money as a tool for rational consumption, money as a barometer of success, money as a cause of anxiety, and distrust. The undergraduates showed several different attitudes of money according to gender, major, age and pocket money. Cluster analysis divided subjects into three groups by attitude toward money : low dependent group, moderately dependent group and high dependent group. Three groups of subjects classified by attitudes of money we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in dining-out behavior as well. The low money-dependent group mainly spent less than 5,000 won on a dining-out, and relied on their own experience and recommendation from others on a dining-out information. In contrast, the high money-dependent group spent 20,000 won or more on dining-out, and the distribution of subjects acquiring dining-out information from various channels in that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other groups.

Corresponding Author : Hye Hyun Yoon, Department of Culinary Science and Arts, KyungHee University, 1 Hoeigi-dong, Dongdaemoon-gu, Seoul 130-701, South Korea Tel: +82-2-961-9403 Fax: +82-2-964-2537 E-mail: hhyun@khu.ac.kr

\* 이 연구는 2007학년도 경희대학교 연구박사 지원에 의한 결과임 (KHU-20080274).

주제어(Key Words) : 금전태도척도(money attitude scale(MAS)), 외식(dining-out), 행동(behavior), 대학생(undergraduates)

## I. 서론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부(富)를 중시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의사결정과 모든 삶을 통해 금전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Oleson, 2004), 소비문화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금전에 대한 태도도 변화하고 있다(Robert & Sepulveda, 1999). 이러한 금전에 대한 신념과 태도는 개인마다 다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영향 변수를 탐색하는 연구들은 시대에 따라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금전에 대한 태도나 행동은 사회적 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전제 아래 비교·문화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상황이 개인의 금전에 대한 가치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김정훈, 동환숙, 2002). 그러므로 금전에 대한 태도는 자신의 인생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며, 교육수준, 부모의 양육방식, 사회계층, 돈을 소비하는 습관, 거시적인 사회화 과정 등 여러 가지 요소들(Bailey & Gustafson, 1986 ; Furnham, 1984 ; Gbadamosi & Joubert, 2005 ; Medina, Saegert, & Gresham, 1996 ; Mitchell & Mickel, 1999 ; Özgen & Bayoğlu, 2005 ; Tang, 1993)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개인의 내적인 가치, 준거 체계, 사회적인 경험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연령대에 속해 있는 대학생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서서히 부모로부터 독립된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개별 경제 주체로서 독자적인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게 되는 시기으로써, 금전에 대한 태도가 현재 생활 뿐 만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금전에 대한 태도와 금전과 관련된 행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차경욱, 2007).

선행 연구에 의하면 금전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되어 왔으며(장재윤, 2002 ; Mitchell & Mickel, 1999), 직접적으로 금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보다는 단지 금전과 연관이 있는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척도들이나(Richins & Dawson, 1992 ; Zuckerman, 1979) 또는 다차원으로 구성되어 관련된 경험적 연구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된 척도들으로써, Forman(1987)은 금전에 대한 열광(MMS : money madness scale)을 측정하였으며, Mitchell, Dakin, Mickel과 Gray(1998)는 금전의 중요성 척도(MIS : money

importance scale)로 금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Tang(1992)은 금전 윤리 척도(MES : money ethics scale)를 이용하여 금전에 대한 태도보다는 윤리적인 속성과 감정적인 측면의 근원적인 가치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으며(Brief, Brett, Raskas, & Stein, 1997 ; McClure, 1984), Furnham(1984)은 금전에 대한 신념과 행동 척도(MBBS : money belief and behavior scale)를 개발하였는데, 금전에 대해 권력과 같은 부의 상징적인 가치나 소비자의 예산 행동 등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금전에 대한 태도나 행동과의 고유한 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 Yamauchi와 Templer(1982)의 금전 태도 척도(MAS : money attitude scale)로써, 금전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어 국내에서 이뤄진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하나의 검증된 척도보다는 여러 가지 척도를 혼합하여 측정하였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일관성 있는 측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Yamauchi와 Templer(1982)의 MAS를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금전에 대한 태도와 소비자의 행동과 관련된 국내의 선행 연구로 가계의 저축행동(허경옥, 백은영, 정순희, 1997), 소비가치 및 태도(김정훈, 이은희, 2002), 의복구매행동(박정숙, 차경욱, 2003), 소비행동(홍은실, 2005), 여가참여(김영숙, 이신정, 2005), 금융기관 이용행동(우석봉, 2006) 등을 열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구매활동 및 소비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금전에 대해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고찰함으로써 주관적인 측면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고, 소비생활 전반에 걸쳐 금전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나타나게 되므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금전에 대한 태도를 통해 구매행동과 관련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소비자 행동의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박정숙, 차경욱, 2003). 그러나 타 분야의 연구에 비해 외식과 관련된 소비행동과 금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연구는 아직 전무한 상태로써, 본 연구에서는 MAS를 이용하여 대학생의 금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금전에 대한 태도 차이를 고찰하였으며, 금전에 대한 태도에 의해 구분된 군집에 따라 대학생의 외식 행동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대학생의 금전에 대한 태도에 따른 외식 행동을 고찰하기 위해 서울지역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07년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예비설문지 50부를 배포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후 한국인의 정서와 대학생의 수준에 적합하게 문항을 재해석하고 보완하여 2007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5일간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서울지역의 4년제 대학교 2곳을 선정하여 총 4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 2. 조사내용

대학생의 금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들(<표 1> 참조)을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금전 태도 척도(MAS : Gresham & Fontenot, 1989 ; Medina *et al.*, 1996 ; Roberts & Sepulveda, 1999 ; Yamauchi & Templer, 1982 ; Yang & Lester, 2002) 26문항을 사용하여 리커드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MAS는 Furnham(1984)의 MBBS보다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이고 측정될 변수의 수(MBBS:MAS = 60:29)가 설문조사에 적합하여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상대적으로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이 선행연구들(Bailey *et al.*, 1994 ;

<표 1> Money Attitude Scale(Yamauchi & Templer, 1982)을 사용한 선행 연구\*

연구자(연도)	연구내용 및 결과	요인분석 결과
Gresham & Fontenot (1989)	성별에 따른 금전에 대한 태도 차이 연구 : 남성이 여성보다 힘-권력, 불신-걱정, 품질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총 32개 변수 사용 : 4개 요인 (power-prestige, retention-time, distrust-anxiety, quality)
Medina <i>et al.</i> (1996)	멕시코-아메리칸과 앵글로-아메리칸의 금전에 대한 태도 비교 연구 : 인종에 따라 금전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앵글로 - 아메리칸이 보유-시간과 품질에서 높은 평균값을 보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총 32개 변수 사용 : 4개 요인 (power-prestige, retention-time, distrust-anxiety, quality)
Roberts & Sepulveda (1999)	멕시코 소비자의 금전에 대한 태도와 일반적인 특성간의 차이 연구 : 응답자의 성별, 연령, 소득, 교육, 직위 등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금전에 대한 태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세부 내용은 본문에 기술)	총 28개 변수 사용 : 5개 요인 (power-prestige, retention-time, distrust-consumer competency, anxiety, bargain-conscious/compulsive)
Robert & Jones (2001)	미국 대학생의 금전에 대한 태도, 신용카드 사용 및 충동구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 : 금전에 대한 태도는 충동구매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신용카드 사용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신용카드 사용이 많은 집단은 금전에 대한 태도 중 힘과 걱정의 측면이 충동구매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주었으며, 사용이 적은 집단은 불신이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총 20개 변수 사용 : 3개 요인 (power, distrust, anxiety)
박정숙, 차경옥 (2003)	대학생 소비자의 돈에 대한 태도 유형별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 돈에 대한 태도를 통해 3개의 군집이 도출되었으며,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군집별 차이가 조사되었고, 의복구매행동을 의사결정단계별로 고찰한 결과 군집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	총 21개 변수 사용 : 5개 요인 (성공-권력, 인정수단, 안전, 불신, 감정)
Engelberg(2005)	경제적인 자기효능감의 정도에 따른 금전에 대한 태도 연구 : 경제적인 자기 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명성, 불신, 걱정 등의 평균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총 29개 변수 : 4개 요인 (prestige, retention-time, distrust, anxiety)
Engelberg & Sjöberg (2006)	상징적인 금전의 의미에 대한 측정과 탐색적 연구 :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금전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4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요인 및 개인적인 가치와 그로 인한 특별한 소비행동에는 잠재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총 29개 변수 : 3개 요인 (power-prestige, distrust, anxiety)
Hayes (2006)	대학생의 금전에 대한 태도, 경제적인 관리, 재정적인 압박 (강요, 긴장)에 대한 연구 : 대학생의 금전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공의 상징이나 표출의 대상으로 금전을 생각하는 경향이 덜 한 것으로 나타났음	총 28개 변수 : 4개 요인 (power-prestige, retention-time, distrust, anxiety)
Bonsu (2008)	소비문화에 있어서 가나인의 금전에 대한 태도 연구 : 금전에 대한 태도 연구들이 대부분 부유한 국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근간하여 서아프리카의 가나인을 대상으로 MAS를 사용하여 금전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부유한 다른 국가들과 유사한 금전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총 26개 변수 : 4개 요인 (power-prestige, retention-time, distrust, anxiety)
Sybrowsky (2007)	대학생의 금전에 대한 태도가 충동적인 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힘과 걱정 측면의 태도는 충동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불신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총 20개 변수 : 3개 요인 (power, distrust, anxiety)

\* 문헌연구 중심으로 연구자 작성

Furnham, Kirkcaldy, & Lynn, 1996)을 통해 입증되었다. 또한 대학생의 외식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의 문헌들(김덕희, 백경연, 2005 ; 김명선, 2005 ; 김희선, 정진은, 2001 ; 정효선, 윤혜현, 2007)을 바탕으로 외식 사유, 횡수, 지출비용, 체류시간, 의사결정자, 정보습득 등을 포함한 6 문항을 도출하였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성별, 연령, 학년, 전공계열, 한달용돈 등 5문항을 포함하여 총 37문항의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3. 분석방법

회수된 403부의 설문지 중 통계 처리가 가능한 387부(86.0%)를 SPSS(versio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였고 대학생의 금전에 대한 태도 조사를 위한 26개 변수는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금전에 대한 태도 차이 분석을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고, 금전에 대한 태도 요인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그룹핑하기 위해 K-means 군집분석과 판별분석을 하였으며,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군집과 외식 행동 간의 분포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Chi-square 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 43.4%, 여학생 56.6%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1 ~ 23세가 43.7%로 가장 많았다. 학년으로는 1학년 24.0%, 2학년 24.8%, 3학년 24.3%, 4학년 26.9%이고, 전공별로는 인문계열 43.7%, 자연계열 56.3%이었으며, 한달용돈은 41만원 이상 36.4%, 31 ~ 40만원 25.1%로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금전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대학생의 금전에 대한 태도 변수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Varimax 회전 방식을 사용하였고, 고유치 기준을 적용하여 1보다 큰 요인에 대해 요인화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표 3>과 같이 총 6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누적설명력은 62.013%를 나타냈는데 이는 Yamauchi와 Templer(1982)의 연구에서 34개 변수로 33.6%의 설명력을 보였고, Furnham(1984)은 47개 변수로 35.4%, Tang(1992)은 30개 변수로 42.8%, Lim & Teo(1997)는 34개 변수로 61.2%의 설명력을 보인 것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요인화된 변수를 대상으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크론바하 알파값이 0.6이상으로 비교적 적합한 신뢰도를 나타냈다.

요인 1은 돈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1-1), 돈을 소유하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다(1-2), 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1-3), 돈은 힘을 의미한다(1-4), 나는 종종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한다(1-5)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권력의 상징형」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2는 돈은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의존할 수 있는 한가지이다(2-1), 나는 돈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2-2), 돈으로는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2-3), 나는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돈을 사용한다(2-4), 돈은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2-5)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맹목적 추구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3은 나는 나의 돈을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한다(3-1), 나는 나의 돈의 예산을 매우 잘 짠다(3-2), 나는 돈을 쓰는데 있어서 매우 현명하다(3-3), 나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현금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축을 한다(3-4), 나는 경제적인 불황을 대비해서 여윳돈을 가지고 있다(3-5)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합리적 소비형」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돈은 그 사람의 성취의 정도를 나타낸다(4-1), 나는 나보다 더 많은 돈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느낀다(4-2), 나는 그 사람의 행동보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한다(4-3), 돈은 성공의 상징이다(4-4)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성공의 척도형」으로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N	%	구분		N	%
성별	남	168	43.4	학년	1	93	24.0
	여	219	56.6		2	96	24.8
연령(세)	~ 20	80	20.7		3	94	24.3
	21 ~ 23	169	43.7		4	104	26.9
	24 ~ 25	81	20.9		~ 20	62	16.0
전공 계열	26 ~	57	14.7	용돈(만원)	21 ~ 30	87	22.5
	인문계	169	43.7		31 ~ 40	97	25.1
	자연계	218	56.3		41 ~	141	36.4

〈표 3〉 금전에 대한 태도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결과

요인 (M ± SD) <sup>a)</sup>	공통성	요인적재량	아이겐값 (설명력)	크론바하 알파
<b>요인 1 : 권력의 상징형 (4.96 ± 1.07)</b>				
1-1 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0.729	0.783	6.252 (24.047)	0.826
1-2 돈을 소유하는 것 매우 즐거운 일이다	0.649	0.775		
1-3 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0.643	0.758		
1-4 돈은 힘을 의미한다	0.631	0.679		
1-5 나는 종종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한다	0.419	0.527		
<b>요인 2 : 맹목적 추구형 (3.55 ± 1.24)</b>				
2-1 돈은 내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의존할 수 있는 한가지이다	0.643	0.757	2.930 (11.271)	0.820
2-2 나는 돈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	0.640	0.753		
2-3 돈으로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	0.608	0.687		
2-4 나는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돈을 사용한다	0.507	0.676		
2-5 돈은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0.616	0.674		
<b>요인 3 : 합리적 소비형 (4.22 ± 1.12)</b>				
3-1 나는 나의 돈을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한다	0.706	0.833	2.104 (8.092)	0.811
3-2 나는 나의 돈의 예산을 매우 잘 짠다	0.710	0.832		
3-3 나는 돈을 쓰는데 있어서 매우 현명하다	0.685	0.800		
3-4 나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현금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축을 한다	0.571	0.738		
3-5 나는 경제적인 불황을 대비해서 여윳돈을 가지고 있다	0.408	0.542		
<b>요인 4 : 성공의 척도형 (4.34 ± 1.19)</b>				
4-1 돈은 그 사람의 성취의 정도를 나타낸다.	0.758	0.805	1.766 (6.791)	0.843
4-2 나는 나보다 더 많은 돈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느낀다	0.652	0.771		
4-3 나는 그 사람의 행동보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0.678	0.756		
4-4 돈은 성공의 상징이다	0.718	0.723		
<b>요인 5 : 불안(걱정)의 원천형 (3.68 ± 0.96)</b>				
5-1 나는 할 수 있든 없든 견딜 수 없다는 말을 종종 한다	0.607	0.717	1.590 (6.114)	0.658
5-2 나는 돈을 쓰는 의사결정을 할 때 종종 어려움을 느낀다	0.556	0.712		
5-3 나는 재정적인 위험에 대해 걱정을 한다	0.465	0.660		
5-4 나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다	0.514	0.658		
<b>요인 6 : 불신(의심)의 원천형 (4.66 ± 1.17)</b>				
6-1 나는 내가 산 물건의 가격에 대해 늘 불평한다	0.772	0.872	1.481 (5.697)	0.747
6-2 나는 중요한 무언가를 구입할 때 내가 무엇을 놓치지 않았는지 늘 의심한다	0.702	0.802		
6-3 무언가를 사고난 후 나는 어딘가에 더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지 않았을까 걱정한다	0.597	0.750		

\* 총 설명력 : 62.013%

<sup>a)</sup> 1점 : 매우 그렇지 않다 ~ 7점 : 매우 그렇다

명명하였고, 요인 5는 나는 할 수 있든 없든 견딜 수 없다는 말을 종종 한다(5-1), 나는 돈을 쓰는 의사결정을 할 때 종종 어려움을 느낀다(5-2), 나는 재정적인 위험에 대해 걱정한다(5-3), 나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다(5-4)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불안의 원천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6은 나는 내가 산 물건의 가격에 대해 늘 불평한다(6-1), 나는 중요한 무언가를 구입할 때 내가 무엇을 놓치지 않았는지 늘 의심한다(6-2), 무언가를 사고난 후 다른 곳에서 더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지 않았을까 걱정한다(6-3)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불신의 원천형」으로 명명하였다.

관련된 선행연구로,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김영숙과 이신정(2005)의 연구에서는 금전에 대한 태도를 성공의 상징, 감정충족의 도구, 미래안전의 도구, 인식과 불신, 불안의 원천, 인정받기 위한 수단 등 6개로 요인화하였으며, 허경옥 외(1997)의 연구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홍은실, 황덕순과 한경미(2001), 김정훈과 이은희(2002), 박정숙과 차정옥(2003) 등의 연구에서도 성공의 척도, 감정충족 도구, 불안의 원천, 인식한 태도, 안전의 도구 등 5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반면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Yamauchi와 Templer(1982)의 연구에서는 힘-지위, 시간-저장, 불신, 걱정, 품질 등 5개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Robert와 Sepulveda(1999)는 힘-지위, 시간-저장, 불신, 격

정, 충동 등 4개 요인으로, Engelberg(2005)와 Bonsu(2008)는 각각 29개와 26개 변수를 사용하여, 힘-위신, 시간-저장, 불신, 걱정 등 4개 요인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ybrowsky(2007)는 20개 변수를 사용하여 근심, 힘, 불신 등 3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본 연구 결과와는 약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국가적인 문화의 차이 및 응답 대상이 상이한 데에서 비롯된 결과로 추측할 수 있겠다.

대학생의 금전에 대한 태도 요인 별 평균값 측정 결과 권력의 상징형 4.96 ± 1.07, 불신의 원천형 4.66 ± 1.17, 성공의 척도형 4.34 ± 1.19, 합리적 소비형 4.22 ± 1.12, 불안의 원천형 3.68 ± 0.96, 맹목적 추구형 3.55 ± 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출된 대학생의 금전에 대한 태도 요인 중 권력의 상징형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맹목적 추구형 요인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금전에 대한 태도의 차이 분석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금전에 대한 태도 요인의 차이 분석은 <표 4>와 같다.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 조사 결과, 불안의 원천형( $p < 0.05$ )에서 여학생의 평균값이 남학생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관련된 연구로 Oleson(2004)은 금전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돈에 대해 조심스러우면서 미래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더 많고, 반대로 Stinerock, Stern과 Solomon(1991)은 남성이 여성보다 돈에 대해 더 걱정한다고 하였다. 불신의 원천형( $p < 0.1$ )에서는 남학생의 평균값이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권력의 상징형과 성공의 척도형에서는 남학생의 평균값이 높았고, 맹목적 추구형과 합리적 소비형에서는 여학생의 평균값이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행 연구의 결과를 인용하면, Furnham(1984)은 남성보다 여성이 돈에 대해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지각을 하면서 금전에 대해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금전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고 하였으며, Tang(1993)은 여성이 재정적인 계획을 더욱 잘 세우고, Prince(1991)도 여성이 남성보다 돈을 다루는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Gresham과 Fontenot(1989)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돈의 권력·명성 항목에서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며, Lynn(1991)도 남성이 여성보다 돈에 대해 더욱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하였고, Furnham(1996)은 남성의 삶에 있어서 여성보다 경쟁적인 환경이 이러한 결과의 원인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가나인의 금전에 대한 태도를 고찰한 Bonsu(2008)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힘·성취, 의심 항목에서 평균값이 높다고 하였으며, 많은 선행연구들

<표 4>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금전에 대한 태도 요인의 평균 차이

구분	금전에 대한 태도 요인						
	요인1 권력의 상징형	요인2 맹목적 추구형	요인3 합리적 소비형	요인4 성공의 척도형	요인5 불안의 원천형	요인6 불신의 원천형	
성별	남	5.01 ± 1.11 <sup>D</sup>	3.54 ± 1.28	4.17 ± 1.16	4.36 ± 1.20	3.54 ± 0.94	4.78 ± 1.20
	여	4.92 ± 1.05	3.55 ± 1.20	4.26 ± 1.09	4.33 ± 1.18	3.79 ± 0.96	4.45 ± 1.14
	t-value	0.767	-0.093	-0.740	0.292	-2.446**	1.786*
전공 계열	자연계	4.80 ± 1.19	3.60 ± 1.29	4.25 ± 1.14	4.31 ± 1.23	3.67 ± 1.01	4.60 ± 1.19
	인문계	5.08 ± 0.96	3.50 ± 1.20	4.19 ± 1.11	4.37 ± 1.15	3.68 ± 0.92	4.70 ± 1.15
	t-value	-2.467**	0.785	0.519	-0.447	-0.110	-0.780
연령	~ 20	4.71 ± 1.13 <sub>a</sub>	3.39 ± 1.12	4.11 ± 1.00	4.17 ± 1.25	3.69 ± 1.06 <sub>ab</sub>	4.51 ± 1.28
	21 ~ 23	4.96 ± 1.07 <sub>ab</sub>	3.63 ± 1.20	4.16 ± 1.09	4.39 ± 1.13	3.80 ± 0.86 <sub>b</sub>	4.51 ± 1.28
	24 ~ 25	5.05 ± 1.04 <sub>ab</sub>	3.63 ± 1.34	4.39 ± 1.12	4.41 ± 1.10	3.58 ± 1.03 <sub>ab</sub>	4.66 ± 1.05
	26 ~	5.17 ± 1.02 <sub>b</sub>	3.41 ± 1.37	4.30 ± 1.32	4.35 ± 1.38	3.45 ± 0.95 <sub>a</sub>	4.78 ± 1.26
	F-value	2.246*	1.040	1.117	0.723	2.240*	0.683
한달 용돈 (만원)	~ 20	4.74 ± 1.12 <sub>a</sub>	3.46 ± 1.29 <sub>a</sub>	4.26 ± 1.04	4.09 ± 1.23 <sub>a</sub>	3.74 ± 1.00	4.48 ± 1.16
	21 ~ 30	4.91 ± 0.95 <sub>a</sub>	3.42 ± 1.17 <sub>a</sub>	4.36 ± 1.10	4.20 ± 1.11 <sub>a</sub>	3.58 ± 0.98	4.72 ± 1.22
	31 ~ 40	4.71 ± 1.15 <sub>a</sub>	3.27 ± 1.10 <sub>a</sub>	4.13 ± 1.12	4.16 ± 1.21 <sub>a</sub>	3.58 ± 0.91	4.49 ± 1.09
	41 ~	5.26 ± 1.01 <sub>b</sub>	3.85 ± 1.29 <sub>b</sub>	4.17 ± 1.16	4.67 ± 1.14 <sub>b</sub>	3.78 ± 0.96	4.81 ± 1.18
F-value	6.512***	4.962***	0.795	5.752***	1.236	2.005	

주. 같은 아래첨자가 나타내는 평균은 Duncan's 검정 결과  $p < 0.05$ 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sup>D</sup> M ± SD(1점 : 매우 그렇지 않다 ~ 7점 : 매우 그렇다)

\* $p < 0.1$ . \*\* $p < 0.05$ . \*\*\* $p < 0.01$ .

(Bailey & Gustafson, 1986 ; Lim & Teo, 1997 ; Prince, 1991 ; Rudmin, 1990 ; Tang & Gilbert, 1995 ; Yablonsky, 1991)에서도 여성보다 남성이 더욱 권력의 성취나 명성의 도구로서 금전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 계열에 따른 평균 차이 조사 결과, 권력의 상징형( $p < 0.05$ )에서만 인문계열이 자연계열보다 평균값이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외 요인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에 따른 평균 차이 조사 결과, 권력의 상징형( $p < 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면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금전을 권력의 상징적인 의미로써 인식하고 있었으나, Furnham (1984)의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금전이 가진 힘의 능력을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고 하여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불안의 원천형( $p < 0.1$ )에서는 타 집단에 비해 26세 이상이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어 금전에 대한 불안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맹목적 추구형, 성공의 척도형, 불신의 원천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합리적 소비형에서도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평균값으로 판단하기에 24세 이상이 24세 미만의 연령보다 금전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Furnham(1984)은 젊은 사람들이 조심스러움이나 예산, 안전, 미래에 대한 염려가 나이 든 사람에 비해 미약하고, Tang(1993), Tang과 Gilbert(1995)도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보다 높은 수준의 재정적인 계획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정훈과 이은희(2002)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돈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고 하였으며, 홍은실(2005)도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연령이 높아질수록 계획적인 소비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한달 용돈에 따른 평균 차이 조사 결과, 권력의 상징형( $p$

$< 0.01$ ), 맹목적 추구형( $p < 0.01$ ), 성공의 척도형(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면서 41만원 이상의 용돈을 받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금전을 권력과 성공의 상징적인 의미로써 인식하고 있었는데, 관련된 연구로 Wernimont와 Fitzpatrick(1972)은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돈에 의해 제공되는 능력인 편안함과 안전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홍은실 외(2001)의 연구에서도 여대생의 월평균 용돈이 많을수록 성공의 척도와 감정 충족의 도구 요인에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불안의 원천형, 불신의 원천형, 합리적 소비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특히 합리적 소비형의 경우 30만원 미만의 용돈을 받는 사람들이 30만원 이상의 용돈을 받는 학생보다 평균값이 높았는데, 유사한 연구로 Tang(1993), Tang과 Gilbert(1995)는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예산에 좀 더 조심스러운 측면을 보인다고 하였다.

3. 금전에 대한 태도에 따른 군집분석과 판별분석

요인분석에 의해 추출된 6개의 금전에 대한 태도 요인을 이용하여 계층적 방법으로 군집수, 군집의 중심점, 극단치를 파악한 후 비계층적 방법을 사용하여 결과의 안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였으며 계층적 군집 분석의 와드기법(Ward's method)을 실시하여 3개의 유효군집수가 확정되었다. 제시된 군집수를 이용하여 K-means 군집 분석을 실시한 후 각 소비자군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 군집에 대한 평균의 차이검증(ANOVA)으로부터 도출된 F 통계량이 유의적( $p < 0.01$ )인 차이를 보이는 요인들에 대하여 대표성 있는 군집명을 명명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도출된 금전 태도 6개 요인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모두 3개의 군집에 도출되었으며, Hallowell과 Grace(1991)를 참고로 하여 평균값이 가장 낮은 군집 1은「낮은 금전 의존 집단(회의론자)」, 군집 2는「보통 금전 의존 집단(미관여자)」, 평균

<표 5> 금전에 대한 태도 요인의 군집분석 결과

	낮은의존집단 회의론자 (N = 129)	보통집단 미관여자 (N = 124)	높은의존집단 광신자 (N = 134)	F value
권력의 상징형	4.12 ± 1.07 <sup>a</sup> <sub>1</sub>	5.23 ± 0.89 <sub>b</sub>	5.51 ± 0.79 <sub>c</sub>	86.856***
맹목적 추구형	2.31 ± 0.77 <sub>a</sub>	3.99 ± 0.83 <sub>b</sub>	4.33 ± 0.98 <sub>c</sub>	201.494***
합리적 소비형	4.00 ± 1.12 <sub>a</sub>	4.35 ± 1.06 <sub>b</sub>	4.30 ± 1.15 <sub>b</sub>	3.721**
성공의 척도형	3.27 ± 0.93 <sub>a</sub>	4.56 ± 0.87 <sub>b</sub>	5.18 ± 0.84 <sub>c</sub>	157.212***
불안의 원천형	3.35 ± 1.10 <sub>a</sub>	3.79 ± 0.79 <sub>b</sub>	3.89 ± 0.88 <sub>b</sub>	12.392***
불신의 원천형	3.57 ± 1.16 <sub>a</sub>	3.73 ± 0.79 <sub>b</sub>	5.60 ± 0.63 <sub>c</sub>	141.301***

주. 같은 아래첨자가 나타내는 평균은 Duncan's 검증 결과  $p < 0.05$ 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sup>1)</sup> M ± SD(1점 : 매우 그렇지 않다 ~ 7점 : 매우 그렇다)

\*\* $p < 0.05$ . \*\*\* $p < 0.01$ .

〈표 6〉 금전에 대한 태도 군집의 판별분석 결과

	합수	고유값	분산비율	정준상관	Wilks' Ramda	$\chi^2$	
금전태도	1	2.076	75.7	0.822	0.195	623.362***	
요인	2	0.666	24.3	0.632	0.600	194.708***	
표준화 정준 판별함수 계수	금전태도요인		함수1		함수2		
	권력의 상징형		0.173		-0.218		
	맹목적 추구형		0.647		-0.238		
	합리적 소비형		0.046		-0.084		
	성공의 척도형		0.582		0.028		
	불안의 원천형		0.032		-0.150		
	불신의 원천형		0.360		0.943		
금전태도 군집	예측소속집단 N(%)						
		낮은의존집단 (N = 129)	보통집단 (N = 124)	높은의존집단 (N = 134)	전체 (N = 387)		
	실재값	C 1	125(96.9%)	3( 2.3%)	1( 0.8%)	129(100%)	
		C 2	1( 0.8%)	120(96.8%)	3( 2.4%)	124(100%)	
		C 3	3( 2.2%)	2( 1.5%)	129(96.3%)	134(100%)	
	교차 유효성	C 1	123(95.3%)	5( 3.9%)	1( 0.8%)	129(100%)	
		C 2	2( 1.6%)	118(95.2%)	4( 3.2%)	124(100%)	
		C 3	3( 2.2%)	2( 1.5%)	129(96.3%)	134(100%)	

\*\*\* $p < 0.01$ , 적중률 96.6% 교차유효성 95.6%

값이 가장 높은 군집 3은「높은 금전 의존 집단(광신자)」이라고 군집명을 부여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된 금전 태도 군집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금전 태도 요인과 분류군집에 대해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판별함수 도출에 사용된 분석 표본에서(N = 387) 낮은 금전 의존 집단(회의론자)은 129명 중 125명(96.9%)이 정확히 판별되었고, 보통 금전 의존 집단(미관여자)은 124명 중 120명(96.8%)이 판별되었으며, 높은 금전 의존 집단(광신자)은 134명 중 129명(96.3%)이 정확하게 판별되었다. 도출된 판별함수가 전체 응답자 387명 중 적중률 96.6%, 교차유효성 95.6%로 정확하게 분류하고 있으므로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Hallowell과 Grace(1991)의 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스타일을 크게 광신자(enthusiasts), 지출자(spender), 미관여자(uninvolved), 회의론자(skeptics) 등 4가지로 구분된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연구로 박정숙과 차경옥(2003)은 성공·미래 안전도구, 인정·감정 충족도구, 인색·불신감의 3가지 군집으로 구분하였고, 김영숙과 이신정(2005)은 미래안전 군집, 불안 군집, 성공·인정 군집, 인색·불신, 감정충족 군집으로 구분하였으며, 우석봉(2006)의 연구에서도 돈에 대한 가치관 31개 항목을 요인 분석한 결과, 능력권위지향, 재테크·자녀성공지향, 소비·과시지향, 계획생활지향 등 4개의 군집으로 구분한 것과 다소 상이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4. 금전에 대한 군집별 외식행동에 대한 교차분석

대학생의 금전에 대한 태도에 따른 군집별 외식 행동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외식 사유에 있어서는 친구·동료와 어울리기 위해 58.4%(226명)와 단순한 끼니 해결 13.4%(52명)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외식 횟수에 있어서는 한 달에 1 ~ 5회 33.9%(131명), 6 ~ 10회 27.9%(108명)로 조사되었으며 군집별 분포의 차이는 없었다. 외식 지출비용에 있어서는 5천원 이상 ~ 1만원 미만 43.4%(168명)와 1만원 이상 ~ 2만원 미만 36.2%(140명)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낮은 금전 의존 집단에서는 타 집단에 비해 5천원 미만 지출한다는 분포가 많았고, 높은 금전의존 집단에서는 2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응답자의 분포가 많아 유의한 차이( $p < 0.05$ )를 나타냈다. 외식 체류시간은 1시간 이내 46.3%(179명), 1 ~ 2시간 43.4%(168명)로 조사되어 거의 대부분 외식업체에 2시간 이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집별 유의한 분포의 차이는 없었다. 외식 의사결정에서는 본인 62.5%(242명)와 친구 24.5%(95명)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군집별 유의한 분포의 차이는 없었지만 높은 금전의존 집단에서 타 집단에 비해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식 정보 습득에서는 과거 방문 경험 43.7%(169명)와 친구·가족을 통해서 33.3%(129명)로 조사되었으며 낮은 금전의존 집단에서는 대중 매체에 의한 정보 습득 보다 방문 경험이나 주위의



〈표 7〉 금전에 대한 태도에 따른 군집별 외식 행동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구분	금전 태도에 의한 군집 (N%)			Total (N = 387)	
	낮은의존집단 (N = 129)	보통집단 (N = 124)	높은의존집단 (N = 134)		
외식 사유	단순 끼니 해결	15(11.6)	15(12.1)	22(16.4)	52(13.4)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9( 7.0)	6( 4.8)	12( 9.0)	27( 7.0)
	친구·동료와 어울리기 위해	81(62.8)	76(61.3)	69(51.5)	226(58.4)
	새롭고 다양한 음식 경험	10( 7.8)	11( 8.9)	13( 9.7)	34( 8.8)
	특별한 날 기념	5( 3.9)	6( 4.8)	6( 4.5)	17( 4.4)
	가정 내 식사가 불가능	9( 7.0)	7( 5.6)	10( 7.5)	26( 6.7)
	기타	0( 0.0)	3( 2.4)	2( 1.5)	5( 1.3)
		$\chi^2$ 8.315 df 12 p 0.760			
외식 횟수 (한달 평균)	1 ~ 5	45(34.9)	42(33.9)	44(32.8)	131(33.9)
	6 ~ 10	40(31.0)	32(25.8)	36(26.9)	108(27.9)
	11 ~ 15	19(14.7)	23(18.5)	24(17.9)	66(17.1)
	16 ~ 20	13(10.1)	15(12.1)	14(10.4)	42(10.9)
	21 ~	12( 9.3)	12( 9.7)	16(11.9)	40(10.3)
	$\chi^2$ 2.191 df 8 p 0.975				
외식 지출비용	5천원 미만	9( 7.0)	3( 2.4)	4( 3.0)	16( 4.1)
	5천원 ~ 1만원 미만	56(43.4)	57(46.0)	55(41.0)	168(43.4%)
	1만원 ~ 2만원 미만	52(40.0)	46(37.1)	42(31.3)	140(36.2)
	2만원 이상	12( 9.3)	18(14.5)	33(24.6)	63(16.3)
	$\chi^2$ 15.524 df 6 p 0.017*				
외식 체류시간	1시간 이내	54(41.9)	51(41.1)	55(41.0)	160(41.3)
	1 ~ 2시간	60(46.5)	62(50.0)	63(47.0)	185(47.8)
	2시간 이상	15(11.6)	11( 8.9)	16(11.9)	42(10.9)
	$\chi^2$ 0.866 df 4 p 0.929				
외식 의사결정자	친구	37(28.7)	34(27.4)	24(17.9)	95(24.5)
	가족	7( 5.4)	5( 4.0)	8( 6.0)	20( 5.2)
	본인	78(60.5)	73(58.9)	91(67.9)	242(62.5)
	연인	7( 5.4)	12( 9.7)	11( 8.2)	30( 7.8)
	$\chi^2$ 3.774 df 6 p 0.707				
외식 정보습득	TV·신문	5( 3.9)	5( 4.0)	12( 9.0)	22( 5.7)
	인터넷	17(13.2)	18(14.5)	32(23.9)	67(17.3)
	친구·가족	53(41.1)	40(32.3)	36(26.9)	129(33.3)
	과거 방문 경험	54(41.9)	61(49.2)	54(40.3)	169(43.7)
	$\chi^2$ 14.394 df 6 p 0.026*				

\*p < 0.05.

추천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높은 금전의존 집단에서는 외식관련 정보 습득의 범위가 타 집단에 비해 광범위하여 유의한 분포의 차이(p < 0.05)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금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금전에 대한 태도 차이를 고찰하였으며,

금전에 대한 태도에 의해 구분된 군집에 따라 대학생의 외식 행동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금전에 대한 태도의 요인 분석 결과, 권력의 상징형(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돈은 자율이나 자유를 준다, 돈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발휘하도록 도와준다, 돈은 힘을 의미한다, 나는 종종 돈과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상한다 등 5개 변수), 맹목적 추구형(돈은 내가 진정으로 의존할 수 있는 한가지이다, 나는 돈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

고 믿는다, 돈으로는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돈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등 5개 변수), 합리적 소비형(나는 나의 돈을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한다, 나는 나의 돈의 예산을 매우 잘 짠다, 나는 돈을 절약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자랑스럽다, 나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현금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축을 한다, 필요한 물건들은 세일을 하거나 값을 깎아서 구입한다 등 5개 변수), 성공의 척도형(돈은 그 사람의 성취의 정도를 나타낸다, 사람들이 벌어들인 돈의 양과 그들의 능력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는다, 사람의 월급은 그의 총명함을 매우 잘 반영한다, 돈은 성공의 상징이다 등 4개 변수), 불안의 원천형(나는 할 수 있든 없든 나는 견딜 수 없다는 말을 종종 한다, 나는 돈을 쓰는 의사결정을 할 때 종종 어려움을 느낀다, 나는 개인적인 재정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러움을 느낀다, 나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걱정이 된다 등 4개 변수), 불신의 원천형(나는 내가 산 물건의 가격에 대해 늘 불평한다, 나는 중요한 무언가를 구입할 때 내가 무엇을 놓치지 않았는지 늘 의심한다), 무언가를 사고 난 후 다른 곳에서 더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지 않았을까 걱정한다) 등 6개 요인으로 구분되었고, 신뢰도분석 결과 모두 적합한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62.013%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금전에 대한 태도의 차이 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불안의 원천형( $p < 0.05$ )에서 여학생의 평균값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불신의 원천형( $p < 0.1$ )에서 남학생의 평균값이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공계열에 따라서는 권력의 상징형( $p < 0.05$ )에서 인문계열이 자연계열보다 평균값이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에 있어서는 권력의 상징형( $p < 0.1$ )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값이 증가하였고, 불안의 원천형( $p < 0.1$ )에서 24세 미만이 24세 이상 보다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한 달용돈에 따라서는 권력의 상징형( $p < 0.01$ ), 맹목적 추구형( $p < 0.01$ ), 성공의 척도형( $p < 0.01$ )에서 용돈을 많이 받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평균값이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금전에 대한 태도 요인으로 군집분석과 판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낮은 금전의존 집단(회의론자), 보통 금전의존 집단(미관여자), 높은 금전의존 집단(광신자) 등으로 군집명을 부여하였다. 대학생의 금전에 대한 태도에 따른 군집별 특징적인 외식 행동으로, 낮은 금전의존 집단(회의론자)은 친구나 동료와 어울리기 위해 외식을 하며, 외식 시 지출비용은 타 집단에 비해 5천원 미만으로 지출하고, 외식 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높은 금전의존 집단

과 비교하였을 때 본인보다 친구가 의사결정을 하는 분포가 높으면서 과거의 방문경험과 주위의 추천에 의존하여 외식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높은 금전의존 집단(광신자)은 낮은 금전의존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외식 시 2만원 이상 지출하는 분포가 유의적으로 높았고, 타 집단에 비해 외식 시 본인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대중매체 및 과거의 방문 경험과 주위의 추천 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외식과 관련된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개인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환경이 반영된 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금전에 대한 태도도 다르며, 금전에 대한 태도에 의해 구분된 특징적인 군집에 따라서도 상이한 외식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 결과 금전에 덜 의존하는 집단은 외식 지출 비용이 적고, 외식 행동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금전에 의존 하는 집단은 외식 지출 비용도 높고, 타 집단에 비해 외식과 관련된 정보를 스스로 습득하는 등 본인의 의지에 의해 주도적으로 외식 행동을 수행하였으므로, 외식 기업은 이러한 우수 고객 집단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하고 심층적인 외식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기호에 맞는 제품 개발에 노력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금전에 대한 태도 유형별 외식 행동의 차이를 통해 주관적으로 나타나는 외식과 관련된 행동을 설명하고 이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면서, 향후 대학생 소비자를 주요 타겟으로 하는 기업에서 각 집단별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실질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금전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선택에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외식 행동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및 외식 행동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다차원적인 측정도구의 부재로 인해 금전에 대한 태도와 외식 행동과의 심층적인 관계 측정을 위한 다소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관련된 선행연구의 부재로 인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분석을 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으며, 금전에 대한 태도 이외에도 소비자의 외식 행동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인을 고려하지 않았고, 표본을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전체 대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할 수 없겠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금전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여 외식 행동과 관련된 주관적인 변수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 개발에 대한 활발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 참고문헌

- 김덕희, 백경연(2005). 도시 지역 직장인들의 외식행동에 관한 연구 1 : 일반적인 특성과 외식행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식품영양학회지*, 18(3), 241-253.
- 김명선(2005). 대학생의 외식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20(5), 548-553.
- 김영숙, 이신정(2005). 성인소비자의 화폐태도 유형별 여가 참여 및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4(5), 771-783.
- 김정훈, 동환숙(2002). IMF 경제 위기 전후 대학생의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 차이. *한국생활과학회지*, 11(3), 237-247.
- 김정훈, 이은희(2002). 돈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유형에 따른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소비가치, 물질주의 태도, 구매충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21-128.
- 김희선, 정진은(2001). 서울시내 대학생의 외식행동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6(2), 147-157.
- 박정숙, 차경옥(2003). 대학생 소비자의 돈에 대한 태도 유형별 의복구매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1(6), 13-28.
- 우석봉(2006). 돈에 대한 가치관 유형에 따른 금융기관 이용 행동 및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논문집 구두 발표*, 522-523.
- 장재운(2002). 직무특성의 직무참여 및 조직몰입간의 관계 : 돈에 대한 태도 및 내외동기 지향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산업 및 조직)*, 15(3) : 1-22.
- 정효선, 윤혜현(2007).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외식소비성향에 관한 연구 : 수도권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외식경영연구*, 7(2), 93-117.
- 차경옥(2007). 대학생의 재무관리행동 유형별 특성 및 재무 지식 수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1), 1-20.
- 허경옥, 백은영, 정순희(1997). 돈에 대한 태도유형별 가계의 저축행동. *소비자학 연구*, 8(2), 43-59.
- 홍은실(2005). 중고대학생의 돈에 대한 태도와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청소년 단계와 성별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03-121.
- 홍은실, 황덕순, 한경미(2001). 여자 대학생의 물질주의 가치 성향과 화폐에 대한 태도 및 금전 사용 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43-158.
- Bailey, W., & Gustafson, W.(1986). Gender and gender-role orientation differences in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money. *Proceedings of the Fourth Annu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Educators*, 11-20.
- Bailey, W., Johnson, P., Adams, C., Lawson, R. J., Williams, P. K., & Lown, J. M.(1994). An exploratory study of the money beliefs and behaviors scale using data from three nations. *Consumer Interests Annual*, 0, 178-185.
- Bonsu, S. K.(2008). Ghanaian attitudes towards money in consumer 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2(2), 171-178.
- Brief, A., Brett, J. F., Raskas, D., & Stein, E.(1997). Feeling economically dependent on one's job : Its origins and functions with regard to worker well-being.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7(15), 1303-1315.
- Engelberg, E.(2005). The perception of self-efficacy in coping with economic risks among young adults : An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heory and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1(1), 95-101.
- Engelberg, E., & Sjöberg, L.(2006). Money attitudes and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6(8), 2027-2047.
- Forman, N.(1987). *Mind over money*. Toronto : Doubleday.
- Furnham, A.(1984). Many sides of the coin : The psychology of money usag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5(5), 501-509.
- Furnham, A.(1996). Attitudinal correlates and demographic predictors of monetary beliefs and behavior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7(4), 375-388.
- Furnham, A., Kirkcaldy, B., & Lynn, R.(1996). Attitudinal correlates of national wealth.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3), 345-353.
- Gbadamosi, G., & Joubert, P.(2005). Money ethics, moral conduct and work-related attitudes : Field study from the republic sector in Swaziland. *Journal of Management Development*, 24(8), 754-763.
- Gresham, A., & Fontenot, G.(1989). The different attitudes of the sexes towards money : An application of the money attitude scale. *Advances in Marketing*, 8, 380-384.
- Hallowell, E. M., & Grace, W. J.(1991). *Money styles*. In

- S. Klebanow & E.L. Lowenkopf(Hrsg.), Money and mind (S. 15-26). New York, London: Plenum Press.
- Hayes, J. V.(2006). *Money attitudes, economic locus of control and financial strain among college students*. Texas Tech University, Doctoral Thesis, 1-107.
- Lim, V. K. G., & Teo, T. S. H.(1997). Sex, money and financial hardship : An empirical study of attitudes towards money among undergraduates in Singapor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8(4), 369-386.
- Lynn, R.(1991). *The secret of the miracle economy*. London : SAU.
- McClure, R.(1984). The relationship between money attitudes and overall pathology. *Psychology*, 21(1), 4-6.
- Medina, J. F., Saegert, J., & Gresham, A.(1996). Comparison of Mexican-American and Anglo-American attitudes toward money.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0(1), 124-145.
- Mitchell, T. R., Dakin, S., Mickel, A. E., & Gray, S.(1998). *The Measurement of Money Importanc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cademy of Management, August, Dan Diego, CA.
- Mitchell, T. R., & Mickel, A. E.(1999). The meaning of money : An individual-difference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3), 568-578.
- Olsen, M.(2004).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oney attitudes and Maslow's hierarchy of need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8(1), 83-92.
- Özgen, Ö., & Bayoğlu, A. S.(2005). Turkish college student' s attitudes towards money.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9(6), 493-501.
- Prince, M.(1991). Gender and money attitudes of young adults. *Proceeding of the Conference on Gender and Consumer Behavior*, 284-291.
- Richins, M. L., & Dawson, S.(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 303-316.
- Roberts, J. A., & Jones, E.(2001). Money attitudes, credit card use, and compulsive buying among America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5(2), 213-240.
- Roberts, J. A., & Sepulveda, C. J. M.(1999). Demographics and money attitudes : A test Yamauchi & Templer's(1982) money attitude scale in Mexico.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7(1), 19-35.
- Rudmin, F. W.(1990). German and Canadian data on motivations for ownership : Was pythagoras right?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7, 176-181.
- Stinerock, R., Stern, B. B., & Solomon, M. R.(1991). Sex and money : Gender differences in the use of surrogate consumers for financial decision-making. *Journal of Professional Services Marketing*, 7(2), 167-182.
- Sybrowsky, J. P.(2007). *Paths toward impulsive buying : The effect of credit use and debt avoidance on the paths between money attitudes and impulsive buying among U.S. college students*. Brigham Young University, Master Thesis, 1-52.
- Tang, T.(1992). The meaning of money revisited.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3(2), 197-202.
- Tang, T.(1993). The meaning of money : Extension and exploration of the money ethic scale in a sample of university students in Taiwa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4(1), 93-99.
- Tang, T.(1995). The development of a short money ethic scale : Attitudes toward money and pay satisfaction revisite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6), 809-816.
- Tang, T., & Gilbert, P. R.(1995). Attitudes toward money as related to intrinsic and extrinsic job satisfaction, stress and work-related attitud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3), 327-332.
- Wernimont, P. F., & Fitzpatrick, S.(1972). The meaning of mone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6, 218-221.
- Yablonsky, L.(1991). *The emotional meaning of money*. New York : Gardner Press.
- Yamauchi, K., & Templer, D.(1982). The development of a money attitud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6(5), 522-528.

Yang, B., & Lester, D.(2002). Internal consistency of the Yamauchi · Templer money attitude scale. *Psychological Reports, 91*, 994

Zuckerman, M.(1979). *Sensation seeking : Beyond the optimal level of arousal*.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접 수 일 : 2008년 4월 7일  
1차 심사시작일 : 2008년 5월 7일  
1차 심사완료일 : 2008년 5월 21일  
게 재 확 정 일 : 2008년 6월 3일